

#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性)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미혼 및 기혼 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A Study on Gender and Self-development in Love:  
Focused on Interview with Single and Married Men and Women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oi, Younshil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der and self-development in love among single and married men and women. This study applies qualitative case study to make sense of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s of love experience associated with traditional gender role,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This method focuses on the experiences and the meanings of love as understood by interviewees. Interview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18 interviewees. The subjects were chosen from lower class and middle class men and women who lived in Seoul.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is the romantic ideologies of love, and that women are responsible for their love relationships. This could be called "the feminization of love". Second, feminized love was related to split gender role, and caused to its costs for men and women, especially conflict over intimacy. Third, even though there was still feminized love, the trend to androgynous love was found. Androgynous love provided an alternative based on interdependence and the integration of love and self-development.

\* 본 연구는 1998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I. 문제의 제기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는 큰 변모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내의 관계와 규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1세기를 앞둔 현재 개인들은 그들의 가족생활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러한 자유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의 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의 선택이나 자유가 중시되고 다양한 생활양식이 등장하는 배경에서 개인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 친밀성의 핵심으로서,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두 개인의 결합을 촉진하고 가족유대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사랑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관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도 분석될 수 있는 주제이다. 사랑은 흔히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의 심리 현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변천과정 속에서 다른 제도나 이념 등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개념의 측면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랑의 연구는 개인간의 일상적 관계를 규정하는 삶의 주요한 인자를 분석하는 의미 외에도, 이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양상이 가족과 사회안에서 집단적인 형상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시대적, 문화적 동향을 파악해내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의 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에서는 사람들이 몰두하는 주제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여려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자주 접근되지 못하였다<sup>1)</sup>.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랑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다양한 연구작업들이

소개되고 있으며(Giddens, 1992; Sarsby, 1983; Sternberg & Barnes, 1988; Aries, 1982), 연구주제로서의 사랑이 사회학(또 하나의 문화, 1991; 함인희, 1998), 심리학(김중술, 1992; 정효택, 1994; 조은혜, 1996; 홍순옥, 1993), 여성학(박혜경, 1993a, 1993b), 가족학(강진경, 1996; 김활란, 1995; 송윤희, 1998) 분야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랑에 대한 연구들이 다룬 주제를 살펴보면, 사랑에 대한 개념규정과 청년기과업, 심리학적 주제와의 연결(김중술, 1992), 사랑의 유형과 타변수와의 관계 분석(강진경, 1996; 정효택, 1994; 조은혜, 1996), 사랑과 애착, 자율성의 관련성 분석(김활란, 1995), 미혼남녀의 교제진행과 사랑(송윤희, 1998), 성역할특성에 따른 사랑경험의 차이(홍순옥, 1993), 전반적인 사회현상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분석(또 하나의 문화, 1991; 박혜경, 1993a, b; 함인희, 1998) 등이다.

이 연구논문들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관한 과학적 논의의 빈 터를 메우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사랑에 연루되는 존재인 남성과 여성<sup>2)</sup>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사회적 성(gender)의 문제임을 고려해볼 때, 이것이 연인관계나 가족 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자기개발(self-development)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다룬 연구는 실제로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은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사적, 공적 영역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Cheal, 1991:89). 19세기 동안 서양에서 발전했던 ‘가정’과 ‘세계’간 차이의 이데올로기 형성에서, 분리된 영역의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가정적인 것을, 남성과 세계적인 것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 인성으로 양극화시켰다. Cancian(1987)은 그러한 양극화의 결과가 결국에는 ‘사랑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ove)’라고

1) 그동안 학자들이 사랑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Berscheid와 Walster(1978)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2)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적 사랑(heterosexual love)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gender)의 문제는 일단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규정짓는다. 그에 따르면, 부드러움과 표현성과 같은 사랑의 여성적 특질에 대한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가족생활의 토대로서 선택적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Cancian은 ‘여성화’되면서 사랑은 “공적 생활, 경제 생산,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돋는 행동과는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감정이 되었다”(1987:24)고 말한다. 이를 통해, 사랑은 여성들에게 보다 적합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자기개발은 주로 남성들의 세계에서의 주요관심사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사랑, 남성-자기개발, 혹은 사랑-관계성, 자기개발-독립성이 동일시되는 이분법의 구조가 등장하여 오늘날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찍이 Beauvoir(1949)가 ‘사랑과 자아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사랑과 자기개발을 결합한 사랑의 새로운 이미지는 학계에서는 좀처럼 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Cancian(1987)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시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제3의 대안이 대중문화에서 먼저 추구되기 시작하여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 잠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자기개발은 사랑과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강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그의 관점은 자기개발에 대한 정신분석이론(Chodorow, 1978; Gilligan, 1982)이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랑과 자기개발은 두 사람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극도로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전통적 결혼에서 강조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일방적 종속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화된 사랑’이나 ‘남성적 사랑’이 아닌 ‘양성적 사랑’안에서 실현된다고 본다(Cancian, 1987:3).

3) ‘양성성’이라는 용어는 궁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닌 것으로 지적된다(Bem, 1977; Secor, 1974). 그것은 성차별주의의 사회적 원인을 과소평가하는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이끌 수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설명인 남성 간 여성간 차이의 완전한 부재를 제안할 수도 있으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가 사랑의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을 결합하는 것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것으로 동일시되는 자아 부분들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사회가 변하면서 점차 엄격한 성역할 분리 규범에 대한 변화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에서나 가족 내에서 성역할(gender role)의 유연화와 자기개발의 자유로운 추구는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의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이것은 1970년대 이래 강조된 ‘양성성(androgyny)’ 개념<sup>3)</sup>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동안 사회에서 규정된 고정되고 경직된 성역할이 개인과 가족내외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사회적 비용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는 사랑의 관계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여성적 사랑이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남성적 자기개발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양성적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반적인 사회적 구조변화와 개인들의 의식 변화에 힘입어 그동안의 낭만적인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조주현, 1993; 조혜정, 1991)이나 전통적인 가족내 성역할구조에 따른 여성의 의존성에 대한 성찰(권희완, 1992; 김은희, 1997; 정창수 외, 1997)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삶에서 정서적 측면이나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가족내 역할 참여의 증가(안병철, 1997; 한경혜, 1997)가 주목되고 있으며, 사랑에서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의 추구를 통한 자기 성장이나 발달(또 하나의 문화, 1991; 험인희, 1998)이 개인적 관계에서의 새로운 쟁점과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 결혼, 독립성, 상호의존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미혼 및 기혼 남녀들이 경험하는 사랑에서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러한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분석과 논의에서는 심

충면접결과를 토대로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현재 우리 사회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연관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연구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다룬다.

첫째, 사랑에 대한 관념은 어떠하며, 자신이 경험했거나 경험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끌고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인가?

둘째, 자신이 경험했거나 경험하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전통적인 성역할의 요소와 연관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무엇인가?

셋째, 자신이 경험했거나 경험하는 사랑에서 상호의존성과 자기개발 추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미혼 및 기혼남녀들이 경험하는 사랑에서 사회적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랑의 경험 안에서 자기개발이 어느 정도 추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성인기 남녀의 자아정체감 형성, 친밀한 관계의 수립을 통한 발달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심리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사회적 구성, 성역할의식이나 가족관계규범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측면도 읽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사랑의 관계 모델이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 전망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랑의 역사

#### (1) 사랑의 여성화

서양에서의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자기개발 사이의 균열은 농업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19세기에 나타났다. 경제생산이 가정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가족생활과 사랑과 사회적 성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켰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전환은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자기(self)의 이상을 만들어냈고, 장기적으로는 사랑과 자기의 양성적 이상으로 이끌었다. 역사적 발전을 더듬어 보면 사랑의 이상은 새로운 노동분화, 남녀간의 존성의 관계 변

화, 분리된 영역의 이데올로기의 의해 영향받았다 (Degler, 1980).

19세기전 가족생활의 지배적 이미지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원들은 물질적·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의 독립적 개인의 이상은 여전히 약했고, 성역할은 양극화되지 않았으며, 가족생활의 사적 영역은 공적 공동체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가족 안에서 활동의 통합은 남성과 여성의 인성 안에서 수단적·표현적 특질을 통합시켰으므로, 남편과 부인들은 비슷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계 구성원을 돌보는 일을 공유하였다(Ryan, 1979).

그런데, 18세기말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가족과 개인적 관계는 경제적 생산으로부터 분리되고 사회적 성에 의한 인성의 병렬적 분리가 일어나, 사랑과 가족적 애착은 여성의 영역으로, 경제적 생산과 개인적 성취는 남성의 영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Cancian, 1987:16). 이러한 사랑의 여성화와 일의 남성화는 남성과 여성의 활동과 인성간 차이를 강화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맞는 사랑의 방식을 만들어낸다.

남성과 여성의 일상적 활동이 더 분리되자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게 되었다(Degler, 1980). 이 세계관은 “가정”과 “세계” 간 차이를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 인성을 양극화시켰다. 가정은 좋고 순수하고 물질적이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장소로 감정과 이상이 집중되는 곳으로, 반대로 외부세계는 거칠고 물질적 곳으로 일반적인 선을 위해 개인적 이익이 희생당하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 두 개의 다른 세계는 여성적과 남성적이라는 두 개의 다른 인성특성들에 의해 지배된다(Cancian, 1987:20). 이상적인 여성은 순수하고 가정적이고 복종적이며, 가정영역의 지배자로서 강력한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남성적 이상은 독립적,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핵심적인 남성의 미덕은 자기통제, 경제적 성공, 용기와 직선적 성격으로 비춰졌다. 오늘날 여전히 영향력있는 남성적 자기개발의 개념은 19세기의 남성적 이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정과 직장의 분리는 성역할의 양극화를 가

지고 오고 사랑을 여성적인 특질로 만들었다. 여성이 사랑을 통제하게 되자, 사랑의 문화적 이미지는 부드러움, 정서표현, 연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여성의 활동을 사랑으로, 그리고 남성의 활동을 일로 보는 것은 결국 양성의 활동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만들어낸다. 남성의 애착과 의존성은 불분명해지고 여성의 생산적인 노동은 사랑이라고 이름붙여졌다. 그러나 여성의 가정노동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농업경제에서보다 덜 존중받게 되었다 (Douglas, 1977). 가족과 경제에서의 권력관계는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독립성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신념들은 가정에서 남성 권력의 우위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과 직장에서 권력 차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물질적 의존과 착취와 관련이 될 수 있다(Ryan, 1979). 19세기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남편에게 극도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일터에서도 물질적 의존의 관계는 역시 양극화된 성역할의 영향을 받았다. Marxist 학자들은 고립된 (남성) 개인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의 부상을 가져왔고, 또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Jacoby, 1975). 가족과 일터에서의 새로운 노동분화는 부인들의 물질적 의존을 심화시켰고 이러한 불평등한 자원과 권력의 관계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이데올로기로 덮어버렸다. 즉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은 여성의 선천적으로 사랑스럽다는 신념으로 덮어버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경제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이는 성역할을 양극화시키고 사랑을 여성화시켰으며 또 남성화된 이상적 자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전이는 사회적 성, 사랑, 자기라는 보다 더 양성적인 개념과 부부간 친밀성의 증가를 초래하였다(Cancian, 1987:27). 새로운 양성적 이상은 남성적 자율성과 여성적 애정을 결합하였다. 정서적 표현은 양성에 있어 모두 가치롭게 여겨졌고, 사적 영역에서의 친밀한 관계는 자신의 독특한 자기를 개발하는 주요영역이 되었다. 사랑의 개념은 또한 양성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화된 사랑이 부인과 남편간의 우애와 개방적 의사소통이라는 새로

운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친밀성과 양성성의 이상은 20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강해졌다. 20세기에 여성과 남성들은 더 유사해지고 더 평등해졌다. 부인들은 남편들과 함께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양성은 모두 친밀성과 자기개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2) 역할로부터 자기로의 변화: 양성적 사랑의 출현

19세기에 시작했던 사회적 변화의 장기적 결과는 가족패턴을 파괴했고, 남성적 독립성의 이상은 여성과 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부인들은 덜 종속적이 되었고 어머니 역할에 덜 몰두하게 되었다. 즉 여성들은 더 적은 수의 아이를 낳고 직업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남편들은 직장에서 시간을 덜 소비하게 되고 직업이 관료화되면서 여가시간을 확장하게 되었다. 20세기 전반을 사람들은 좀더 유연하고 양성적인 가족역할과 자기개발과 개인생활에 더 많은 몰입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개인적인 행복과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안적인 생활방식에 더 관용을 갖게 되었으며, 남녀평등에 더 투신하였다.

양성적 사랑으로의 추세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Cancian, 1987:30). 1920년대와 1960년대 후반같은 개인적 해방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그 추세가 가속화되었고, 1950년대에는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성역할이 더 엄격해지고 관용성은 감소되던 때였다. 이러한 불연속성은 결혼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직되는 가에 있어서 시대별로 다른 기간들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는 시대별로 가족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게 만들고, 행동을 이끄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와 이상적 결혼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를 결합시킨다.

〈표 1〉은 19세기 이래로 사랑의 주요한 변화상을 제시한다. 제일 처음에는 사랑이 여성의 책임이 되는 가족적 의무라는 모습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의 결혼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가족상이 뒤따른다. 1920년경에는 보다 전통적인 동반자의 이미지이다. 마지막의 새로운 모습은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그들 관계에 대한 일을 의무로 공유하고, 자기개발의 목표가 역할에 대

〈표 1〉 사랑의 변화상

사랑의 종류	누가 사랑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무엇이 사랑인가?
· 여성화된 사랑 가족적 의무 (19세기) 동료의식 (1920- )	여 성 여 성	가족에 대한 의무 수행 결혼 안에서의 친밀성
· 양성적 사랑 독립성 (1970- ) 상호의존성 (1970- )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	개인적 자기개발과 친밀성 상호적 자기개발, 친밀성, 지원

출처 : Cancian(1987:31).

한 동조를 대체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결국 “역할에서 자기로” 변화하는 것이며, 사랑 안에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공존하는 양성성 쪽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자기개발

사랑과 자기개발간의 분명한 갈등은 성역할의 양극화와 연관이 있다. 19세기 이래로 사랑과 가족이라는 여성영역과 자기주장과 일이라는 남성영역이 분리되었다는 것이 사회사가들의 지적이다(Degler, 1980). 여성들은 가정에서 애정과 돌보기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성취를 희생하며, 남성들은 가족에게 돈을 제공하고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고 또 자녀들이나 친구들과의 친밀한 애착을 희생한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전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표현적인 아내와 능력있고 도구적인 남편간의 구분은 결혼에서의 사랑과 가족행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Cancian, 1987:4).

현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자기주장간의 균열을 보여준다(Ruble, 1983). 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상호배타적이며 대립되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사랑이 여성적 역할과 동일시되고, 자기개발이 남성적 역할과 동일시되는 한 사랑과 자기개발은 대립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19세기 이래로 문화적으로 사랑의 정의는 여성화

되었다. 사랑은 여성과 동일시되고, 부드러움, 감정과 같이 여성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특질과 동일시되어, 사랑은 감정표현과 동일시되었다. 이것으로 여성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행동하기를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의 편향이 이루어졌다. 즉 여성들은 감정에 있어서 남성보다 더 기술이 있고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성성이나 힘과 연관되는, 도움을 주거나 활동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은 경시되어 왔다. 사랑의 여성화는 여성들이 사랑과 가족에 초점을 맞추도록 장려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한 가족유대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즉, 남성들은 부드러운 감정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들이 사랑에 투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성화되고 자기개발은 남성화되었던 것이다(Stockard & Johnson, 1980).

인성발달에 대한 심리학이론에서는 건강한 인성이 된다는 것은 의존적 아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Erikson(1950)은 개인은 이상적으로 “신뢰감 대 불신감”을 거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的 위기를 통과하며, 오로지 완전히 성인기에만 “친밀성 대 고립감”이 쟁점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Gilligan(1982)은 “발달, 그 자체는 분리와 동일시되며, 애착은 발달적 방해와 동일시된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인성발달에서 애착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적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들의 타인에 대한 친밀한 유대는 발달

적으로 지체나 과도하게 “장의존적” 혹은 불충분하게 개체화된 징후로 해석된다.

자기개발이라는 이 남성적 개념은 사회적 힘의 하나이다. 사회에서는 남성에게는 이를 장려하여 그들 스스로를 주장하게 하고 독립적 성취에 대한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나, 여성들에게는 이를 장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자기개발간 분리는 성역할이 더 유연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일상적 논의에서부터 학문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현대적 사고에는 일련의 관계된 이원론이 팽배하다(Unger, 1975). 이러한 이원론은 정신 대 육체, 행위 대 존재, 이성 대 열정, 추상 대 구체,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남성적 자유 대 타인에 대한 여성적 애착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 3. 양성화된 사랑과 자기

사랑과 자기가 좀더 양성적인 이미지를 갖추게 되는 것은 19세기말에 가시화되었다고 앞에서 밝혔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는 모순된 효과를 가져왔는데, 성역할의 양극화와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증가가 그것이다. 20세기에는 남성적 역할과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개인주의를 찬미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는 여성과 사적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부인들은 점차 취업을 하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자기개발에 대한 열망이 강화되었다.

70년대쯤에 이르면 자기개발은 남녀 모두에게 기본적 가치가 되었으며, 사랑과 자기를 함께 추구하는 좀더 양성적인 이미지가 발전하였다. 사람들은 보다 유연하고 양성적인 성역할로 이동하고, 사생활과 감정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행복한 결혼이나 사랑의 관계를 두 배우자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자율적인 자아 개발시키기,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의 측면에서 묘사하게 되었다(Veroff et al., 1981). 이 새로운 사랑의 이상은 양성적으로서, 남녀 모두 관계에 똑같이 책임을지고 서로에게 개방적으로 의존하며 자기개발에 혼신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서적·언어적 표현이 강조된다는 면에서 사랑은 여성화된 측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 자아개념은 점차 양성적이 되어가고, 자기개발된 사람의 초상은 여성적 친밀성이나 정서적 표현과, 남성적 독립성의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 확장된 양성적 자아는 독립성, 정서적 통제, 경제적 성공을 남성의 이상이라고 보는 남성적 자아의 제한된 이미지를 대체하게 되었다. 사랑과 자기개발은 이 새로운 이상에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강화된다. 이와 같이 친밀성과 자기개발이 결합되어 강조된 것은 대중심리학이나 인간참여 운동의 새로운 영향력을 반영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이 가진 “치료적”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다(Bellah et al., 1985).

투신된 사랑과 자기개발이 함께 발생하고 상호적 지원이 강조되는 것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안에서이다. Cancian(1987:8)은 상호의존성이 자기개발과 지속적인 사랑을 통합하는 현실적인 방식이며, 전통적 가족과 성역할보다 더 나은 관계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이미지는 둘다 친밀한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의 자기개발에 대한 탐색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때때로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은 두 사람의 상호적 사랑과 투신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큰 협동과 공유를 하고, 더 만족스러운 성적 친밀성을 나누며, 경직된 성역할의 한계를 넘어 확장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의 가장 내밀한 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경험은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의 계기를

단면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경험 속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노영주, 1996; 1998)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랑의 경험은 미혼의 경우, 예전이나 현재의 연인과의 관계에, 그리고 기혼의 경우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시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면접과정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주로 하되 반구조화된 질문과 구조화된 질문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연령, 학력, 직업, 결혼지위 등 피면접자의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은 본격적인 면접 과정에서 사용하였으며, Cancian(1987)의 연구에서 사용한 24가지의 '커플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sup>4)</sup>를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면접에 앞서 설정한 연구주제는 사랑에 대한 관념과 주체, 여성화된 사랑과 그 비용, 양성적 사랑과 자기개발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사회적 성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으며, 또 사랑 안에서 자기개발이라는 측면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개인적, 관계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것들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몇 단계에 걸쳐 추출되었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들을 반영하는 질문에 답하여 연구대상인 피면접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채록하여, 그 채록내용을 여러 번 숙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화가 가능한 모든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표로 정리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중첩되는 범주를 하나로 묶고 최종적인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다.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사랑에 대한 관념과 주체에서는 피면접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관념이 검토되고, 사랑의 주체와 책임이 여성과 남성 중 누구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랑의 이미지를 검토하고 '여성화된 사랑'의 실체를 확인해 본다. 여성화된 사랑과 그 비용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 여성화되면서 치르게 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점검해 본다. 이러한 비용은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차원에서 모두 치르게 되며, 가정내에서는 친밀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추구되는 자기개발을 '양성적 사랑'이라는 개념 설정을 통하여 분석해보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와 결혼관계 안에서 나뉘어 살펴본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gender)의 역할과 자기개발의 가능성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주제의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반영해낼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결혼 전과 결혼과정에서의 사회적 성(gender)의 역할을 비교해 보기 위해 미혼과 기혼 집단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면접한 총 18사례 중 미혼은 10사례였고, 기혼은 8사례였다. 결혼한 연구대상자들의 경우는 모두 초혼인 경우이며 사별이나 별거, 이혼 직전 등과 같은 특수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또한 사랑에 대한 의식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性)이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시켰다. 피면접자중 여성은 10명(미혼: 5명, 기혼: 5명), 남성은 8명(미혼: 5명, 기혼: 3명)이었다.

연구대상 선정에서 사회적 계층별로 사랑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학력을 감안하기 위해 대졸 이상과 고졸을 선정하였으나, 고졸 학력

4) Cancian(1987)은 1980년과 1983년에 수행한 남캘리포니아에서의 친밀한 관계(close relationship)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 조사', '커플 조사', 심층면접 등 3개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체크리스트는 이 중 '커플 조사'에서 사용된 것이다.

의 피면접자는 3명으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직업적인 지위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직업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31.3세로, 연령층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사랑의 경험은 연령에 따라 경험한 사회적 환경에 차이가 나고, 또 결혼 지위의 변화나 가족발달단계상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피면접자들의 일반적 성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피면접자들은 주로 인맥을 통해서 유목적적 표집방법으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은 주로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나

연고가 있는 대학에서 소개받았으며, 그 외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은 연구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 면접은 1998년 6월 27일부터 1998년 8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피면접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면접의 질을 좌우한다고 판단하여 피면접자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피면접자의 집, 직장이나 학교부근의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었다.

면접시간은 대개 2시간 정도였지만, 피면접자에 따라서는 1시간 반이나 3시간도 걸린 경우가 있어 다소의 편차가 있었다. 이러한 편차는 피면접자의 시간적 여유나 주변환경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였는데, 피면접자와 연구자의 친근감 형성을 위해서 걸린 시간의 차이도 다소 있었다. 면접은 주로 오후 중 점심식사 후와 저녁식사 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

사례번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지위
1	여	21세	대학 재학	학생	미혼
2	여	22세	대학 재학	학생	미혼
3	남	26세	대학원 재학	학생	미혼
4	여	22세	대학 재학	학생	미혼
5	남	28세	고등학교 졸업	자동차 정비공	미혼
6	남	33세	대학 졸업	증권회사 회사원	기혼
7	여	35세	전문대학 졸업	전업주부	기혼
8	남	37세	대학원 졸업	대학교수	기혼
9	남	27세	대학 재학	학생	미혼
10	여	27세	대학 졸업	통신회사 회사원	미혼
11	여	34세	고등학교 졸업	구두공장 노동자	기혼
12	남	29세	대학 졸업	무역회사 회사원	미혼
13	여	36세	대학원 졸업	컴퓨터회사 회사원	기혼
14	남	44세	대학 졸업	무직	기혼
15	여	43세	고등학교 졸업	전업주부	기혼
16	여	39세	대학원 졸업	전직 강사/현재 주부	기혼
17	여	31세	대학원 재학	학생	미혼
18	남	29세	대학 졸업	고시준비생	미혼

〈표 3〉 피면접자들의 면접일시 및 면접 장소

사례번호	면접 일시	면접 장소
1	1차 1998. 6. 27 16:10 - 18:30 2차 1998. 7. 4 14:30 - 16:10	연구자의 연구실
2	1차 1998. 7. 7 15:40 - 18:00 2차 1998. 7. 11 10:00 - 11:40	연구자의 연구실
3	1차 1998. 7. 14 16:20 - 18:30 2차 1998. 7. 18 10:30 - 11:30	연구자의 연구실
4	1차 1998. 7. 21 15:40 - 17:50 2차 1998. 7. 24 18:00 - 20:00	연구자의 연구실
5	1차 1998. 7. 29 18:30 - 19:40	피면접자 직장 부근 레스토랑
6	1차 1998. 7. 30 19:30 - 21:40	연구자의 연구실
7	1차 1998. 8. 1 10:10 - 12:30	피면접자의 집
8	1차 1998. 8. 2 15:00 - 17:10	피면접자의 연구실
9	1차 1998. 8. 5 18:30 - 20:00	연구자의 연구실
10	1차 1998. 8. 8 14:30 - 16:50	피면접자 직장 부근 카페
11	1차 1998. 8. 9 15:10 - 17:30	피면접자의 집
12	1차 1998. 8. 11 19:30 - 20:40	연구자의 연구실
13	1차 1998. 8. 13 18:40 - 20:00	연구자의 연구실
14	1차 1998. 8. 14 10:00 - 11:40	연구자의 연구실
15	1차 1998. 8. 14 16:20 - 18:00	피면접자의 집
16	1차 1998. 8. 16 15:00 - 17:30	피면접자의 집
17	1차 1998. 8. 19 18:40 - 20:30	피면접자의 집 부근 카페
18	1차 1998. 8. 20 10:00 - 11:50	연구자의 연구실

조사초기에 실시한 면접은 2차까지 재면접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1차 면접으로 끝났다. 피면접자의 시간적 부족이 큰 이유였고, 면접기간이 경과하면서 연구자의 면접기술이 조금 늘어 피면접자와 친근감 형성을 위해 들이는 시간도 많이 축소할 수 있었고, 연구문제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면접기록을 위해서 피면접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면접 후에는 이 녹음된 면접 내용을 풀어서 재생하였다. 채록된 면접내용의 재생에서는 보조연구원 2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의 면접 일시 및 장소는 〈표 3〉과 같다.

#### IV. 분석 및 논의

##### 1. 사랑에 대한 관념과 주체

###### (1) 사랑에 대한 관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된 피면접자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념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다분히 낭만적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저는 사랑하면, 우선 낭만적인 것부터 떠올라요. 근사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두 사람이 호젓한 공원에서 만나서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한다거나 말이죠.... 혹은 비오는 날에는 색깔있는 우

산을 같이 쓰고 빗속을 걷다가 제 남자 친구가 장미 한 송이를 건네주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제가 갖고 있는 속 마음을 잘 몰라줘서 아주 섭섭할 때가 있어요(피면접자 1, 여, 미혼).

여대생이 피면접자인 이 사례에서는 전형적으로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관념을 별 저항없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본인이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전개되지 않고 있지만, 관념적으로는 상당히 대중화된 모습의 '사랑의 이미지'를 지님으로 해서 현실과 관념 사이의 괴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낭만적 이미지와 더불어, 피면접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개념에서는 확연하게 '여성화된 사랑'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은 일단 느낌이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피면접자 2, 여, 미혼).

제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마치 따뜻한 물이 제 목까지 차올라온다고 할까요, 아무튼 저를 너무 포근하게 해줘요, 이럴 때, 아 정말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느껴요...(피면접자 3, 남, 미혼).

사랑을 주로 감정적인 것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전형적으로 여성의 특질이라고 규정된 온정이나 부드러움과 동일시하는 이 피면접자들의 태도는 사랑이 여성적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와 더불어 피면접자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에서는 사랑은 여성들이 더 관심을 지니고 있고 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여자애들은 만나기 하면 누가 누구와 연애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도 여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의 비어있을 때 도서관 앞 잔디밭이나, 또

학교 끝나고 카페 같은 곳에서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누구하고 좋아지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몰라요...(피면접자 4, 여, 미혼).

확실히 여자들은 잘 쟁겨주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음식도 그냥 시간없으면 제가 다니는 카센터 옆 가게에서 간단하게 빵 사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저한테 늘 옷을 좀 멀을 내서 입고 다니라고 그러고 티셔츠 같은 것도 색깔 맞춰 입고 다니라고 하면서 가끔씩 사오기도 해요... 또 제가 빵을 먹은 걸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꼭 나타나서, 아 그 친구는 저희 카센터 가까이에 있는 수퍼에서 일하거든요... 김밥이라도 사와서 먹으라고 쟁겨줘요... 어떤 때는 바쁘고 그래서 귀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절 생각해줄려고 그러는 것이라니 하고 생각하면 고맙게 느껴져요. 사실 워낙 자상하고 꼼꼼한 친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잘챙기는 것 같아요. 전 월급 받으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부치는데, 아예 그 친구한테 그 일을 맡겨버렸어요...(피면접자 5, 남, 미혼).

한편 사랑의 관념에서 '여성화'를 반영하는 피면접자들의 이러한 의식들은 사랑이 지니는 도구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주로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측면들에 치중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면접에서 실제로는 사랑에 대한 관념에서 다소색다른 언급을 하는 피면접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주로 남성들이었고, 연령층이 높은 기혼자들이었다.

제 집사람은 저와 함께 팔짱을 끼고 쇼핑을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힘들 때 살짝 안아줄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할 때 '이게 사랑하는 거다' 싶거든요(피면접자 6, 남, 기혼).

결혼 전에는 편지에다 열렬한 감정을 쏟아내고 안 보면 보고싶어 또 데이트 약속을 하고 그랬죠... 그땐 참 정열적이었다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재도 우리 얘기 아빠를 사랑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열렬한 마음만 사랑이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깊이 모

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해서 같이 먹고, 와이샤쓰 눈부시게 빨고 다림질해서 입고 나갈 때, 이게 다 사랑이다 싶어요. 우리 얘기 아빠도 제게 그러대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세 식구 살 수 있다 싶으면, 그렇게 좋고 힘이 난대요 그게 돈 이든 아니면 보살펴 주는 것이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사랑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피면접자 7, 여, 기혼).

남성들에게서 사랑의 관념이 성적인 행위와 동일시되는 사례들이 몇몇 경우 있었지만, 이에 비해서 여성들에게는 성이 사랑의 관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사랑에 대한 관념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특히 기혼의 연령층이 높은 피면접자들에게서는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한 부분인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생활의 과정에서 사랑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변용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2) 사랑의 주체와 책임

여성화된 사랑은 주로 여성들에게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한다. 이는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현실이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와이프가 할 일이죠. 학교 나가면 집안 일은 될 수 있으면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결혼 초에는 저도 결혼기념일 같은 것도 몇 번 챙기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만 넘겨버리게 되드라구요(피면접자 8, 남, 기혼).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여성적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사랑하는 능력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서의 차이를 강조한다. 여성들이 사랑과 관계된 일에 더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사랑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하여 사랑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이 떨어지며, 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정도도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제가 군대 있었을 때, ○○이가 보내주는 편지읽

고, 또 휴가 나와서 ○○이랑 만나서 같이 놀고 했던 게 큰 힘이 됐어요. ○○이는 평소에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다소곳하고 내숭떠는 성격이 아니고 유머감각도 있고 애가 참 활달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그래도 여자답게 굴려고 노력하는 게 역력해요, 전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복학하고 나서 이제는 늘 불어 다니는데... 정말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늘 저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저를 위해 뭔가 계획하고 록 콘서트 같은 데도 같이 가자고 표도 사 갖고 오고 그래요(피면접자 9, 남, 미혼).

저는 가끔씩 오빠가 제 곁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제 생활이 삐딱해졌을까 생각해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치게 되요. 오빠가 밥 먹었나, 회사에는 나갔나하구요... 혹시 친구들과 어울리다 집에 늦게 들어가서 매일 밤 자기 전에 해주는 전화를 안하면 너무 신경질이 나오요(피면접자 10, 여, 미혼).

그러나 사랑을 둘러싼 ‘관계’에서의 여성들의 주체적인 관여는 ‘권력’에서의 남성들의 우세를 강화시키게 된다. 즉 여성들은 ‘관계’에 몰두하고 남성들은 주로 ‘일’에 집중하게 되어, 그 결과 나타나는 성에 따른 과대전문화(overspecialization)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하고 남성들은 권력을 지니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된다.

## 2. 여성화된 사랑과 그 비용

### (1) 사랑의 여성화에 따른 성역할 분화와 비용

본 연구에서의 면접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의존적이고 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사랑의 여성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즉 사랑의 주체는 여성이고 사랑의 속성도 주로 여성적인 특성과 연결된다는 사고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와서 여성들을 사랑과 관계된 행위와 영역의 전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은 가정과 관계에, 남성들은 일과 독립성에 초점을 두는 지향성을 발전시켰다고 생각된다.

제가 일을 나가지만 전 ○○아빠가 돈 버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죠. 저는 제가 할 일은 집에서 살림살고 식구들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별 기술이 없으니까 구두공장에서 시다(조수 노동자) 노릇을 한 9개월쯤 했는데, 벌이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만 두려는 생각도 있어요. 전 늘 ○○아빠의 말대로만 하는데, ○○아빠는 사실 제가 이 일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을 거예요(피면접자 11, 여, 기혼).

저는 제가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결혼을 미루려고 해요. 물론 지금 여자친구는 한시가 바쁘다고 저를 보채지만요, 우리는 동갑이거든요, 여자 나이 스물 아홉이니까 초조한가 본데, 저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곤 해요. 물론 여자친구 집에서 부모님이 성화를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남자로서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하는 걸로 웃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어요(피면접자 12, 남, 미혼).

지나치게 분화된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에게 여러 가지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

언젠가, 시아주버님 생신 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말대꾸를 한다고 시어머님이 조용히 다른 방으로 불러 제게 야단을 치시더군요.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정말 속이 답답하더군요.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제가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기를 죽인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남자가 집에서 힘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어엿한 실장인데 말이죠.. 결혼 초에는 남자만 밖에 나가서 일하면 됐지, 여자는 뭐 하러 밖에 나가느냐고 하시더니... 여자는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식구들 잘 거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피면접자 13, 여, 기혼).

IMF위기 이후 실직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끌장이 났구나 하는 생각에 눈이 캄캄해지더군요. 평소에 집사람이 자기도 가계를 돋겠다고 조그맣게 장사라도 하겠다고 했는 걸 뜯어말렸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 막막하고, 또 식구들 볼 면목도 없어져요... 옛날 직장만은 못해도 그래도 애

기듣고 괜찮으면 어쩔까 싶어 다시 취직하려고 뛰어다니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전 번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이력저력 꾸리고는 있는데, 걱정이에요. 큰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전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대학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어떻게 감당할지...(피면접자 14, 남, 기혼).

피면접자 13의 사례는 남성들이 직업추구를 통해 사회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는 가정에서의 권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사회적 통념이 여성의 장소는 '집'이기 때문에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장소를 벗어난 제약과 압력이 존재한다. 근대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이러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상황에 불만과 억압감을 느끼고 이는 심리적 비용으로 등장하게 된다.

반대로, 남성들에게 있어서 과도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직업에서의 성공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피면접자 14의 사례로 나타난다. 이 면접 사례에서는 엄격한 성역할의 분리를 강조했을 때 실직으로 인해 남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소득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위축됨을 보여준다.

사랑의 여성화와 그에 따른 성역할의 과대분리는 또한 신체적인 측면의 질병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

하루종일 집안일 하고 식구들 신경쓰다보면 밤에는 거의 녹초가 되어버리죠. 여기저기 쑤시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정말 파김치가 되는 기분이에요(피면접자 15, 여, 기혼).

제가 하는 일을 그만 두고 집안에 들어앉으니 처음엔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 책 들여다보고 공부하던 사람이 집안일이나 애들 뒤치다끼리만 하다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고... 세상에서 이렇게 고립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러더니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우울해지더군요. 나중엔 속이 답답하고 식은 땀이 나서 결국엔 내과 갔다가, 신경정신과까지 가봤지요(피면접자 16, 여, 기혼).

지나치게 경직된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의 자신들

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억압시켜, 질병, 불행, 심리적 압박감 등을 가함을 알 수 있다(Cancian, 1987:81).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암, 우울증 등 거의 모든 질병들을 경험하는 것과 강하게 연관된다는 보고(Gove, 1973)가 있는데, 이는 특히 본 연구의 피면접자 16과 같은 여성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2) 친밀성을 둘러싼 갈등

인간은 생존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애착(attachment)을 필요로 한다. 반면 사람들은 또한 독립성과, 자기를 발달시킬 자유를 필요로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적절한 독립성은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분화된 성역할체계는 사랑과 자기개발, 의존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한다.

저는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빨리 결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이고, 지난 번에 자격시험에 한 번 떨어진 이후로는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집에서도 제가 뭐 뾰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절더러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요즘 같아선 그저 지금 제가 사귀는 사람한테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유일한 힘인데... 어떤 것에도 별로 의욕이 없고 불행하다는 생각만 드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저를 구원해 줄 것은 그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요(피면접자 17, 여, 미혼).

사실 전 애인을 만들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았습니다. 군대 갖다오고 복학해서도 제 앞에 놓여진 목표만을 생각했었고... 고시를 준비하게 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뭐랄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주변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런 건 제가 성공한 생각하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피면접자 18, 남, 미혼).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대개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들

은 더 많은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남성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질병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들은 그들에게 친밀한 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다(Cancian, 1987:81). 본 연구의 면접 사례에서도 이러한 남녀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피면접자 17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탈출구'로서 스스로 혼자 독립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사귀는 남성과의 사랑과 결혼에 의존하고자 한다. 피면접자 18은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부인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밀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 확연하게 노출되었다.

우리 ○○아빠한테 느끼는 제일 큰 불만이 바로 그 거예요. 전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아빠가 집에 일찍 일찍 들어와서 오순도순 같이 밥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에 보니까 부부끼리 다정하게 얘기도 주고 받고 해서 너무 부럽거든요, 그런데 얘 아빠는 친구들만 너무 좋아하고, 또 술을 너무 좋아해요. 지난 주에는 3일씩이나 집에 12시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좀 좋냐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밥도 안 먹고 나가버리더라구요, 자기가 뭐 놀면서 그러는 줄 아느냐구요...(피면접자 11, 여, 기혼).

집사람은 제가 아이들 하고도 놀아주지 않고 집에 와서도 책만 보고 있다고 불평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별로 신경을 써주는 것 같지 않아요, 결혼 5년째니까 권태기에 이를 때도 됐다고 하면서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집에 있으면 쉬고 싶거나 아니면 쓰다만 논문 생각을 하게 되지, 집사람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질 않아요(피면접자 8, 남, 기혼).

더 많은 사랑을 원하는 부인들과 그것으로부터 물러서려는 남편들간의 갈등은 여성화된 사랑과 과도하게 분화된 성역할이 치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정서적 친밀성

을 추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사회화 과정부터 그러한 특성이 훈련되지 않은 남성들은 이러한 측면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친정언니랑 나가서 큰 맘 먹고 옷 한 벌 사 입고 들어왔었어요. 살림 하다보니까 제 옷은 변변한 것 하나 사 입게 되질 않더라고요. 마침 며칠 있다가 시댁 쪽에 결혼식도 있고 해서 잘 됐다 싶었지요... 결혼식 당일날 제 땐에는 신이 나서 멋을 부리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왜 빨리 준비하지 못하느냐고 조바심을 치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시부모님하고 시간 맞춰서 시댁에 들려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크게 싸웠는데... 전 예쁘게 보이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신부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시간에 늦지 않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새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눈치도 못 채는 것 같았어요(피면접자 7, 여, 기혼).

지난 주말에 무슨 뮤지컬인가를 같이 갔었는데, 제가 그 주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고단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어느 새 깜박 졸았던가 봐요. 박수 소리에 잠을 깨서 보니 집사람 얼굴이 쟁하고 토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까지도 안 풀리고 있더군요. 생활비 아끼느라 모처럼 만에 간 문화행사였는데, 제가 좋아서 기분도 안 나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창피하기도 했다면서요, 저는 저대로 은근히 화가 좀 치밀었어요. 제가 놀다가 그런 게 아니고 직장 나가서 일하다가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나 싶었죠. 집사람이 쉬는 날까지 저를 피곤하게 만든다 싶었어요(피면접자 6, 남, 기혼).

이러한 면접사례에서처럼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지니고 있는 결혼에서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는 반면, 남편들은 그들이 간혀있고 질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 3. 양성적 사랑과 자기개발

#### (1) 양성적 사랑을 통한 자기개발

여성화된 사랑은 친밀성에 대한 갈등을 야기하고

과대분화된 성역할을 강화시킨다. 반면 양성적 사랑은 상호의존이나, 양성에 있어서 사랑과 자기발전의 통합에 기반한 대안을 제공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면접자들은 여성화된 사랑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양성적 사랑의 측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제가 경험하는 세계가 훨씬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캠퍼스 커플인데, 일단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버릇이 됐지만, 주말이 되면 가까운 교외로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해요. 또 친구들하고도 부담없이 어울려 영화도 같이 보고 우리 집에 같이 와서 기타 치고 놀기도 해요. 오빠는 좋은 것이 있으면 저랑 꼭 같이 하고 싶어하는데, 오빠랑 이것 저것 같이 하면서 원래 소심한 편이었던 제가 좀 활달해지는 것 같고 관심갖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변화는 오빠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저 혼자 하는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옛날 같으면 모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도하게 돼요(피면접자 2, 여, 미혼).

양성적 사랑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Cancian, 1987:105). 첫째, 독립성 모델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표현을 강조하는데, 자기는 관계에 투신을 하지 않거나 공유된 규범이나 의무없이 발달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둘째, 상호의존성 모델에서는 상호적 지원을 강조하고,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관계에 투신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전 사랑도 제가 바로 서고 나서 그 다음에 있게 된다고 봐요. 자기 한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 것도 해놓은 것 없이 결혼부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기도 하구요(피면접자 18, 남, 미혼).

전 제 여자친구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애는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군대에 갖다 오질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어쩌면 그 애가 먼저 유학 가고, 제가 군대에 가 있게 되면 아마 오랫동안 헤어져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 애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애는 공부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 점이 저하고 통하는 측면이었어요. 그 애가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구요(피면접자 3, 남, 미혼).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로지 독립성 모델만을 고려하고, 그것이 이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침해하는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Cancian, 1987:105).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상호의존성 모델에서 분명한 자기개발로의 추세라는 궁정적 측면이 간과되었다. 자기개발의 의미에 대한 혼란은 부분적으로 학계의 부정적 편견을 반영한다. 자기개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지닌 사람은 자기실현 탐색을 극도의 독립성과 자기 몰두와 연결시킨다. 이는 자기개발이 어떻게 사랑과 상호적 의존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위의 피면접자 18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독립성 모델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면접자 3의 사례에서는 대조적으로, 사랑 안에서의 상호간 자기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호의존성 모델을 보여준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걸 믿어요. ○○이도 많이 변했고 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전 사실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방황했고 학교 공부도 려치우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가 제게 관심 보여주고 정성을 기울이면서 저란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고 철든 것도 있는데, 복학한 뒤에는 제 생활이 질서가 잡혔어요. 요즘엔 어디를 가야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의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현명한 의견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괜찮은 여자 친구를 가졌구나 하고 뿌듯한 적이 많아요(피면접자 9, 남, 미혼).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 중에는 관계에 투신하는 것이 자기개발에 기여했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양성적이고, 광범위한 행동을 권장하는 관계에 의해 자기개발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 (2) 결혼에서의 양성적 사랑

결혼 안에서의 자기개발은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새로운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자기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계는 안정과 지원, 새로운 관계양식을 개발하는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되면서도 상호의존적이 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우리 부부는 연애할 때부터 잘 하던 말이 있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같이 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세계를 필요로 할 때는 그걸 존중하고 서로를 방해하지 말자구요'(피면접자 8, 남, 기혼).

본 연구의 면접 사례들의 면접 결과에 의하면, 결혼 내에서는 대개 자유나 상호의존성보다는 안정(security)이 달성되기가 쉽다. 결혼한 부부들은 함께 머물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규칙들과 기대들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확실히 그렇게 느끼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확실히 안정된 것 같아요. 총각 때는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많이 마시려 다녔고 생활에 절도도 없었죠. 요즘엔 그렇게 늦게까지 술마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있을 뿐이에요. 물론 회사일이 그만큼 많아진 탓도 있지만, 일이 없을 때에는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피면접자 6, 남, 기혼).

그러나 안정을 제공하는 규칙과 교환은 종종 자유를 제한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경직되고 엄격하게 분화된 성역할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혼 초기엔 공과금을 내는 것을 남편에게 맡겼었지요. 그 때는 박사과정 학생이라서 그래도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까먹고 몇 달씩 밀리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귀찮더라도 제가 하게 되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집안일이라고 제가 해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집안 일과 관계된 그런 일들은 결국엔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피면접자 16, 여, 기혼).

피면접자 16의 사례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역할규범을 창출하려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단면을 노출시킨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역할규범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부들이 편의를 위해 전통적인 역할구분을 수용하게 되는 '효율성을 위한 성역할분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물질적 교환과 공유는 또한 결혼의 안정과 투신에 기여한다. 결혼한 사람들의 사랑은 대개 함께 살고, 재산도 함께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고,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식사시간과 여가시간을 함께 하는 등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결혼한 사람들을 안정시켜 타성화될 위험도 내포한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에서의 사랑은 정서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을 결합시킬 정서적·물질적 공유영역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랑이 '자기개발'이라는 요소를 진지하게 의식하고, 기존의 생활양식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오히려 미혼자들이 구축하는 사랑의 관계보다 훨씬 더 '양성적 사랑'의 모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시댁 식구들은 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여성과 남성의 일에 개방적이고 전보적인 편이에요. 제 생각엔 유학 시절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은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날에는 집안 일을 참 많이 도와줘요. 아이들과 놀아도 주고 숙제도 봐주고 또 청소도 하고, 사실 저희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주말에 제가 요

리하고 부엌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진공청소기 돌리는 일을 하고 쓰레기 비우는 일을 하죠, 그리고 제가 세탁기마다 빨래를 해놓으면 그 빨래를 베란다에 갖다가 널어놓는 일은 그 사람 몫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 일하면서 자기같은 남편이 없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런 일들을 자기 일로 알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고 힘들다고 동정적인 발언도 하지요... 그런 걸 보면 남을 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피면접자 13, 여, 기혼).

집사람이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럴 때 처음엔 좀 망설이게 되더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나중엔 결국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집사람은 꽤 공부를 잘한 편이었는데, 결혼하느라고 대학원에 가는 걸 포기했거든요. 아직 얘기도 없으니 공부할 여건도 괜찮고... 그래도 학기말에 보고서낼 때 정신없어서 집안일이 엉망이 될 때에는 저도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런 것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 집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집사람이 때때로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것처럼 보일 때에는 저도 기분이 괜찮고 제가 그 사람을 지원하고 있다는 마음에 흡족한 생각이 듭니다(피면접자 6, 남, 기혼).

위의 두 사례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정서적 지지와 아울러 도구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 자기개발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적 사랑'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결국 안정성과 자유를 균형 맞추는 문제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들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의 긴장이 고조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역할규범이 자리잡아갈 것이라고 전망해본다.

##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한국사회에서의 사랑에 대한 관념, 사랑의 관계에서의 주체와 책임, 전통적인 성역할과 그 비용, 사랑에서의 상호의존성과 개인개발의 추구 가능성 등이었다.

미혼 및 기혼 남녀들을 연구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러한 관심사들을 추적한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사랑을 경험했거나 현재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랑에 대한 관념은 아직도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자신들이 주변환경과의 관계에서 설정한 사랑에 대한 낭만적 이미지는 현실에서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구되고 있어, 현실과 관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이미지는 정서 편향의 다분히 여성적인 것이며, 또한 사랑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사랑의 여성화’ 현상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사랑이 여성의 주로 담당하고 또 여성의 진가를 발휘하고 우위에 서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따라서, 여성화된 사랑과 관계하여 미혼의 관계 이든 기혼의 부부관계이든 성역할의 분리가 일어나고, 여성의 정서적 영역이나 가정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성역할의 분리는 친밀성을 둘러싼 갈등이나 부양자 역할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비용을 치르게 한다. 넷째, 그러나 여성화된 사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관계에서의 상호간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양성적 사랑도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성역할 분리의 엄격성이 무너지고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의 공존을 추구하는 경향과 아울러, 사랑이 단지 정서적 표현이나 의존 뿐만 아니라 물질적·도구적 지원의 측면도 강조되는 분위기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상호의존적 관계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기개발을 결합시킨다. 그 이전에 강조되었던 남성적인 독립성 모델과 달리, 상호의존성 모델은 자기개발을 친밀한 관계의 산물로 보고 접근하는데, 이러한 모델은 종

종 치료적 관계의 모델로서 사용되며, 두 가지 측면에서 양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모델은 우선 사랑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책임이며, 둘째, “남성적인”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감정적 지원과 표현을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의 존적 여성의 역할과 독립적 남성의 역할을 뒤파꾸는 대신 서로를 경직시키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관계 양식 안에서 서로를 격려한다. 그들은 신뢰감과 안정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규칙과 기대를 개발시킬 것이다.

한편 상호의존성 모델은 결점도 지닐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과 정서적 상호의존성이 종종 과대강조될 위험이 있다. 반면 물질적 상호의존성은 무시되고, 한계를 지우는 규칙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있다. 둘째, 미혼이든 기혼이든 사랑의 관계에 있는 두 사람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다보면, 그 두 사람이 더 큰 사회에 연결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 간 괴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친밀성과 자기에 향하게 함으로써 그 괴리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독립성 모델이나 우애적 관계 모델 등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에 대한 모델에 비교해 볼 때 상호의존성은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서양에서의 역사적 추세를 살펴보면 ‘역할로부터 자아’로, 그리고 우애적 결혼과 여성화된 사랑으로부터 상호의존적 관계와 양성적 사랑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추세는 제한적이나마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지닌 비과학적인 인상과 용어 규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논의 전개의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대상들의 연구주제에 대한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접근 등이 제약으로 작용했다. 또한 소수의 피면접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연령이나 학력 수준에 있어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 못한 한계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나 가족과 같은 일차적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갖는 비중 등을 고려해볼 때, 그리고 이 개념이 성역할 구조나 가족관계 규범, 사

회내 조직의 인간관계 등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측면과 맷는 연관성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탐색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 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35-70).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은희(1997). “신중산층의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조혜정 외 저.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 (pp. 235-271). 서울: 집문당.
- 김중술(1992).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활란(1995). 중, 노년기 부부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 35-55.
- \_\_\_\_\_(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또 하나의 문화(1991).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박혜경(1993a). 여성의 경험을 통해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_\_\_\_\_(1993b). “결혼 속의 사랑과 권력”. 조주현 외 저.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pp.251-272). 서울: 현실문화연구.
- 송윤희(1998). 미혼남녀의 교제진행과 사랑.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정창수·정기선·차종천(1997).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서울: 집문당.
- 정효택(1994). 사랑의 유형과 그 심리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주현(1993).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조주현 외 저.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pp. 9-26). 서울: 현실문화연구.
- 조혜정(1991). “결혼, 사랑, 그리고 성”.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pp. 23 - 44).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pp. 33-52).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함인희(1998). 사랑을 읽는다. 서울: 출판시대.
- 홍순옥(1993). 성역할 특성에 따른 사랑경험의 차이: 청년기 이성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ies, P.(1982). *Sexualites Occidentales*. 김광현 역 (1996). 성과 사랑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 Bellah, R., R. Madsen, W. Sullivan, A. Swidler, & S. Tipton(1985).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m, S.(1977). “Beyond androgyny”.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The Family in Transition* (2nd ed.)(pp. 204-221). Boston: Little Brown.
- Berscheid, E., & Walster, E. H.(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Reading, Mass.: Addison-Wesley.
- Beauvoir(1949). *Le Deuxieme Sexe*. 박찬길 역(1990). 제2의 성. 서울: 도서출판 선영.
- Cancian, F. M. (1987). *Love in America: Gender and Self-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al, D. (1991).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NY: Harvester Wheatsheaf.
-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gler, C. N.(1980). *At Odds: Women and the Family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Pres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ouglas A.(1977). *The Feminization of American Culture*. NY: Knopf.

-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Y: W. W. Norton and Co.
- Giddens, A.(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 배은경 · 황정미 역(1995).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 물결.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ve, W. R.(1973).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45-67.
- Jacoby, R. (1975). *Social Amnesia*. Boston: Beacon Press.
- Norton, R. W. (1988). "Communicator style theory in marital action: Persistent challenges". In S. W.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307-324). NY: John Wiley & Sons Ltd.
- Rothman, S. M.(1978). *Women's Proper Place: A History of Changing Ideals and Practices 1870 to the Present*. NY: Basic Books.
- Ruble, T.(1983). "Sex stereotypes: Issues of change in the 1970s". *Sex Roles* 9:397-402.
- Ryan, M.(1979). *Womanhood in America(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2nd ed.). NY: New Viewpoints.
- Sarsby, J. (1983). *Romantic Love and Society*. 박찬 길 역(1985). *낭만적 사랑과 사회*. 서울: 민음사.
- Schwartz, M. A., & Scott, B. M.(1994). *Marriages and Families: Diversity and Chang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ecor, C. (ed.)(1974). *Women's Studies* 2. no. 2. Special Issue on Androgyny.
- Sternberg, R., & Barnes, M.(1988). *The Psychology of Love*. 고선주 · 이경희 · 조은숙 · 최연실 편 역(1994). *사랑의 심리학*. 서울: 하우.
- Stockard, J., & Johnson, M.(1980). *Sex Rol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rong, B., C. DeVault, & B. W. Sayad(1998).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Intimate Relationships in a Changing Societ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 Unger, R. M.(1975). *Knowledge and Politics*. NY: Free Press.
- Veroff, J. E. Douran, & R. Kulka(1981). *The Inner American: A Self Portrait from 1957 to 1976*. NY: Basic Books.